

# 히노데소학교의 덕혜옹주

: 기억의 파편에 조우하며

권숙인

\* **지은이** | **권숙인** 서울대 인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인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Politics of Furusato in Aizu, Japan: Local Identities and Metropolitan Discourses'라는 제목의 박사학위 논문은 일본의 주변지역인 아이즈 지역에서 외부 자본과 담론에 대응/항하며 자신들의 지역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대한 에스노그래피이다. 주변부 집단의 정체성, 이주와 이산 등의 주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최근 논문으로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 "식민지배기 조선 내 일본인 학교", 저서로 『한일사회의 중심과 주변』 등이 있다. 숙명여대 일본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6년 1월 말, 도쿄 일본국회도서관 사서가 건네 준 책은 제법 무게감 있다. 『빨간 벽돌의 우리 배움터: 경성 히노데소학교 백년지』. 개교 100주년 기념회지에 실린 글답게 자부심 가득 찬 동문과 교사들의 글을 훑어 보다 일순 가슴이 두근거린다. 내 인지 지도에 별로 올라온 적 없고, 한국인의 집단기억에서도 별다른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던 한 인물이 갑자기 생경할 정도의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시선을 잡는다. “이덕해 웅주님.” 동창생들의 회고와 사진을 훑어 보며 나는 우선 두 가지에 놀란다. 덕해웅주의 ‘출중한’ 외모와 복장에서 풍기는 ‘모던함’. 흰 얼굴에 동급생보다 커 보이는 키, 지금 입어도 훌륭할 듯 세련된 양장 차림은 기억의 어느 자락에 묻혀 있던, 혹은 빛바랜 역사자료 속에 스러진 제국의 마지막 황실가족의 일원으로 등장하는 쪽진 머리 당의 차림의 웅주 이미지와는 다른 어떤 ‘현실감’, 지금 당장 걸어 나와 전혀 위화감 없이 또래 소녀들과 어울릴 것 같은 생생한 존재감으로 다가왔다.

기실 덕혜옹주는 1962년 초 귀국한 뒤 1989년 사망 시까지 줄곧 서울에서 살았던 ‘동시대인’이기도 했다. 다만 동시대인으로서의 가시성이 부정되고 공식적 역사에서 거의 잊혀진 존재였다.<sup>1)</sup> 패망한 제국의 상흔을 환기시키는 옹주는(보다 정확히는 옹주의 상처와 질병은?) 가십과 뒷담화의 소재는 될 수 있을지언정 정식으로 무대에 등장시켜 직시하기엔 부담스럽고 불편한 존재였으리라.<sup>2)</sup> 그런 까닭에 덕혜옹주에 대한 소학교 동급생들의 생생한 기억은 생경할 정도의 놀라움과 반가움으로 다가왔다. 일본인 ‘친구’들의 회고와 기억을 감싸고 있는 진심 어린 동정심과 순진무구한 향수, 그리고 그 기억 속에 등장하는 어린애다운 발랄한 풍경들은 오랜 동안 한국사회가 보여 온 주저함 및 민망한 회피와 이플 정도로 대조적이다.

이 글에서는 일차적으로, 필자가 우연히 발견한 덕혜옹주에 대한 기록을 소개하고자 한다. 기껏해야 사소한 비공식 자료에 그칠 내용을 소개할 수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옹주의 삶에 대한 기록이나 기억이 아직 많은 부분 누락되어 있는 덕분일 것이다. 나아가 불편한 역사적 기억의 복구란 과제가 조금은 더 강조될 수밖에 없는 이즈음, 무엇을 어떻게 복구하고 기억할 것인가를 질문하는 조그마한 에피소드가 될 수도 있겠다.

덕혜옹주는 1912년 5월 12일 덕수궁에서 고종과 궁인 양씨 사이에 태어났다. 일제에 의해 강제 양위 후 덕수궁에 유폐되어 생활하던 고종은 환갑이 되던 해에 얻은 막내이자 고명딸인 덕혜<sup>3)</sup>의 탄생을 매우 기뻐하였고 덕혜 출생 당일에 옹주

1) 대한제국이 전공인 사학자 서영희는 대한제국 황실은 우리 역사에서 “잊혀진 역사”이며, 특히 일본으로 강제로 끌려간 영친왕과 덕혜옹주는 “어떠한 학문적 조영도 받지 못한 채 그 비극적 최후가 철저히 베일에 싸여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평가한다. 서울대학교박물관 엮음, 『마지막 황실, 잊혀진 대한제국』, 32쪽.

2) 이 글의 목적이 아니기에 간단히 언급만 하자면, 덕혜와 마찬가지로 일본 황녀와 강제결혼을 했던 영친왕 이은의 삶과 덕혜옹주의 삶을 비교할 때 추론되는 전제 함의는 꽤나 자명하다. 구(舊) 변주(藩主) 후계자라고는 하나 대마도라는 주변부 출신의 일본 남성에게 ‘시집갔다’가 정신질환을 앓고 이혼 ‘당한’ 뒤 ‘친정’으로 겨우 돌아온 ‘민족의 딸’은, 식민 모국의 황족 가문의 딸을 아내로 ‘맞아’ 고국으로 ‘데리고 와’ 살았던 ‘아들’에 비해 더 난감한 존재이다. 반면 영친왕의 경우, 제국의 황태자 신분으로 인질살이를 시작하여 생의 대부분을 일본에서 보냈다는 점 때문에 남성화된 제국의 명예에 가져오는 손상은 더 치명적일 수 있을 것이다.

의 생모 양씨에게 복녕당이란 당호를 내렸다. 고종이 덕혜옹주를 각별한 사랑 속에 키웠음을 보여 주는 자료와 에피소드는 많이 남아 있다.<sup>4)</sup> 옹주가 만 4세가 될 무렵인 1916년 고종은 덕수궁 내에 유치원을 만들어 귀족의 딸들 중 또래 7~8명을 뽑아 같이 생활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만 6살 때인 1919년 고종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고 옹주는 모친인 양귀인과 함께 창덕궁 내 한 전각으로 거처를 옮겼다. 덕혜옹주가 히노데소학교의 2학년생으로 입학한 것은 고종 사후 2년 뒤인 1921년 4월로 만 아홉 살이 될 무렵이었다.<sup>5)</sup> 이후 1925년 3월 말 도쿄의 여자학습원으로 ‘유학’을 떠날 때까지 만 4년 동안 히노데소학교를 다녔다. 아래 인용하는 자료는 히노데소학교 졸업생들이 모교의 개교 백주년을 기념하며 만든 회지<sup>6)</sup>에서 덕혜옹주와 관련된 기억을 회고한 내용이다. 이 글의 뒷부분에 언급하겠지만 덕혜옹주에 관한 단편적인 기록이나 혼마 야스코가 쓴 덕혜옹주 평전에서도 옹주가 4년간 다녔던 이 학교에서의 생활 자체에 대해선 거의 소개된 바 없다.<sup>7)</sup>

\* \* \*

### 급우 스기우라 기미코(杉浦喜美子)의 글

나는 아버지의 일 때문에 아파토마치(大和町) 3정목에 있던 체신국 관사에서 살았습니다. 당시에는 형제 몇 명이 같이 히노데소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

3) 혼마 야스코(本馬恭子)의 평전에 의하면 덕혜(德惠)라는 이름이 정해진 것은 옹주가 히노데에 입학한 직후의 일이다. 아울러 이름 뒤에 붙일 존칭도 (일본 공내성의 처분을 거쳐) 이 무렵에서야 정해지면서 이전의 “복녕당 아기씨”를 대신하여 덕혜옹주가 정식 호칭이 되었다. 혼마 야스코, 이훈 옮김, 『덕혜옹주』, 역사공간, 2008, 68쪽.

4) 석주선(石宙善), 『日本文化子女大學 服飾博物館 所藏 德惠翁主 遺物 小考』, 『韓國服飾』 9호,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1991; 혼마 야스코, 『덕혜옹주』 등 참조.

5) 히노데에 입학하기 전에는 창덕궁으로 교사를 불러 두세 명의 조선인 또래들과 공부를 했던 것 같다.

6) 京城日出會, 『わが赤煉瓦の学び舎: 京城日出小学校百年誌』, 1989. 히노데소학교는 1889년 8월 당시 한성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인 자녀들의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현재 서울 중구 필동(퇴계로) 극동빌딩 자리에 세워진 히노데소학교는 통감부·(초기)총독부 등 일본관청과 관사, 일본인 상점가가 가까이에 위치한 까닭에 일본인 고관과 부유층 자녀가 많이 입학했으며 “조선의 학습원(學習院)”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다. 권숙인, 『식민지배기 조선 내 일본인학교: 회고록을 통해 본 소·중학교 경험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77집, 2008. 해방 후 일신(日新)국민학교가 되었다가 없어졌다.

7) 아래 인용 글들은 『わが赤煉瓦の学び舎: 京城日出小学校百年誌』, 京城日出會, 1989, 198~208쪽에서 발췌한 것이다.

데, 우리 집도 오빠 3명과 언니, 여동생, 나, 6명이 모두 히노데소학교를 다녔습니다. 히노데소학교는 경성에서도 훌륭한 학교로 ‘학습원’<sup>8)</sup> 같은 학교라 이야기되기도 한 것 같은데, 조선 왕족 분들도 가끔 다니셨습니다. 셋째 오빠 반에도 한때 왕족 분이 재학했던 것 같은데, 교실에서는 가장 앞자리에, 다른 것보다 깨끗한 책상을 쓰고 비백(飛白: かすり)의 일본 옷에 하카마(袴)<sup>9)</sup> 차림. 수업 중 손수건으로 쥐를 만들어 던지거나 한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2학년 때 이왕가의 덕혜옹주님이 우리 반에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담임은 스즈키 하루(鈴木ハル) 선생님, 3학년과 4학년 때는 마가라 도요(眞柄トヨ) 선생님, 5학년 때는 오가와 기치타로(小川吉太郎) 선생님이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덕혜옹주님을 가르치는 데에 최적임이었던 훌륭한 선생님들이셨다고 생각됩니다.

덕혜옹주님은 왕족다운 기품을 갖추시고, 키가 크고 얼굴이 흰 분으로, 머리는 한 가운데를 반으로 나누어 뒤에서 양쪽으로 길게 땅아 얇전하게 늘이고, 일본 옷에 하카마를 입으시고 학교에 오셨습니다. 운동회 때에 달리기 경주를 하실 때면 그 길게 땅은 머리가 등 뒤에서 좌우로 흔들리던 모습 등이 생각납니다. 매일 상궁[女官] 분이 같이 마차를 타고 오셔서 수업 중에 계속 교실 뒤에 서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어느 때인가 학급의 전원이 왕궁 내의 비원에 초대를 받아 밤 줍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의 사진은 지금도 간직하고 있지만 정말 즐거웠던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덕혜옹주님은 동요를 지으시는 데에 능하셨는데, 그 중에 「비행기」라는 동요가 있습니다.

8) 1877년 메이지정부가 화족(華族)의 자제들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설립한 학교로 천황가의 자제들도 이 학교를 다닌다.

9) 일본 옷의 곁에 입는 주름 잡힌 정장용 바지.

남쪽 하늘에서 날아온

南の空から飛んできた

커다란 날개 단 비행기가

大きなおはねの飛行機が

빼라를 잔뜩 뿌리고 있다

たくさんビラをまいている

금색 빼라 은색 빼라

ビラは金ビラ銀ビラ

나는 그 빼라가 갖고 싶은데

わたしはそれがほしいけれど

바람의 신이 데리고 간다

風の神様つれてゆく

어디로 가는지 보고 있자니

どこへ行くかと見ていれば

솔개가 있는 데에서 놀고 있다

とんびの所で遊んでいる

여기에 곡을 붙인 것을 모두 열심히 부르곤 했습니다. 그 뒤에 5학년이 끝나고 덕혜옹주는 도쿄의 학습원으로 옮기셨습니다. 어릴 때의 일이었기에 그에 관련된 사정은 잘 모르고 있었지만 그 뒤는 그다지 행복하지 못했던 것을 대충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최근 이방자 여사가 쓰신 『세월이여 왕조여: 최후의 조선왕비자전』<sup>10)</sup>을 읽었는데 그 안에 덕혜옹주와 관련된 것도 여러 가지 쓰여 있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히노데소학교를 다니고 계셨던 무렵이 가장 행복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 급우 다카하시 가에코(高橋下枝子)의 글

나는 기억력이 아주 안 좋아서 어린 시절의 일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두 살 위의 오빠는 옛날 일을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는데, 그 오빠로부터 덕혜옹주와 관련된 걸 쓰지 그러냐는 권유를 받고 주저하였습니다만 어쨌든 단편적인 거라도 써 보기로 했습니다.

히노데소학교 5학년이 끝날 무렵이었는데 이왕직(李王職)에 근무하셨던 아버지

10) 李方子, 『歲月よ王朝よ — 最後の朝鮮王妃自伝』.



〈사진 1〉 덕혜옹주가 학습원으로 전교할 때 창경궁 비원의 송별회에서 찍은 사진으로 동그라미 안의 인물이 덕혜옹주이다. 이 사진은 덕혜옹주의 일본유학을 기념하여 히노데소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이 만들어 증정한 사진첩(경성히노데공립심상소학교, 『경성히노데공립심상소학교사진첩』京城日出公立尋常小学校写真帖, 1925)에도 실려 있다.

가 도쿄에 출장 가시는 것과 관련해 상경하셨습니다. 그리고 덕혜옹주님을 방문하셨는데, 어떤 예비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저를 함께 데리고 가셨지만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했었는지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아마도 말이 없던 저는 별로 이야기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십 년도 더 지난 뒤, 덕혜옹주님의 학습원에서의 모습 등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덕혜옹주님을 위로하기 위해 저를 데리고 가셨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버지는 나에게 그런 것에 대해 한마디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는지 의문이 듭니다만 어린애들이기에 아무 말도 안 해주신 채 그저 자연스럽게 봐두신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히노데에 다니실 무렵의 덕혜옹주님은 마차를 타시고 항상 두 명의 상궁을 대동하셨는데, 학우로는 민용아(閔龍兒)씨가 함께 있었습니다. 학습원으로 가신 뒤 어떤 생활을 하셨는지에 대해선 전혀 모릅니다만 아마도 갑작스럽게 환경이 변해서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 생각되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사진 2〉 덕혜옹주가 학습원으로 전교한 후 처음 귀국했을 때 과학교실 앞에서 찍은 사진. 1926년 3월. 맨 앞에 의자에 앉아 있는 인물이 덕혜옹주이다(井東三保子 제공).

장충단에서 운동회를 할 때 함께 달려가 반환점에서 머리에 올려놓았던 커다란 오자미와 손에 들고 뛰었던 나무 주걱을 교환한 뒤 다시 돌아 달려왔던 일 등이 생각납니다. 그로부터 몇 년인가 지난 뒤 한번 더 뵈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귀여운 아기가 계셨습니다. 약간 가름한 얼굴에 흰 피부, 시원한 눈매가 덕혜옹주를 꼭 빼닮은 아기를 낳을 잃고 봤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미 소(宗)백작부인이 되셨던 때인 셈인데, 그게 언제였는지 그 전후의 일들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 급우 마쓰우라 사카루(松浦斌)의 글

작년에 나는 동기회지 10호에 다음과 같은 회고 글을 쓴 적이 있다. “아침에 등교를 할 때면 학교 정문 앞에 두 마리 말이 끄는 훌륭한 마차가 서 있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덕혜옹주님이 통학하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교 안에서의 옹주님의 동정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전혀 알지 못했지만 오야마(大山) 교장 선생님을 위시해 담임선생님, 학우들 모두가 마음으로부터 옹주님을 경애하며 깊은 동정심과 배려를 다했을 것입니다. 동경의 여자학습원으로 전교하시고 대마도 소케(宗家)와



결혼 후 병이 나셨다는데 정말이지 마음이 아픕니다.

옹주와 관련해 1915년부터 만 8년 동안 히노테에서 근무하셨던 스즈키 하루 선생님<sup>11)</sup>이 동기회지 2호에 다음과 같이 쓰고 계십니다. “덕혜옹주가 입학하신 것은 2학년이 시작될 때로, 교실 안의 옹주의 책상과 걸상은 밤색 옷칠을 한 훌륭한 것이 준비되었고 화장실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오야마 교장은 교장실을 옹주, 학우인 민용아, 한효남(韓孝男), 상궁 2명 등 다섯 명을 위한 휴게실로 바꾸고 자신은 교원실로 옮기셨습니다. 학우로 와타나베 기쿠코(渡辺喜久子, 현재의 성: 門馬), 다케다 다미코(武田民子, 현재의 성: 小牧), 마쓰무라 도모코(松村知子, 현재의 성: 酒井, 사망), 스에마쓰 가에코(末松下枝子, 현재의 성: 高橋)<sup>12)</sup> 우스이 기미코(碓井喜美子, 현재의 성: 杉浦)<sup>13)</sup> 등 다섯 명을 뽑아 옹주의 책상 전후좌우의 자리를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등교하실 때가 되면 현관까지 맞으러 나간 뒤 휴게실로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하교하실 때에는 옹주께서 상궁에게 교원실의 문을 열게 하고는 먼저 교장선생님께, 그 다음에는 다른 선생님 일동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또한 동기회지의 제1호에 스기우라 기미코(杉浦喜美子)가 쓴 옹주 관련 회고에 의하면, “옹주는 공부를 잘하셨는데 특히 습자가 아주 훌륭하셨습니다. 또 동요를 몇 개인이 쓰셨는데, 그것으로 작곡해 모두 함께 불렀습니다. 지금도 “남쪽 하늘에서 날아온……”이라는 노래는 구절구절 그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쓰고 있다. 매우 훌륭한 동요라고 생각한다. 이 동요에 대해서는 올해 2월 20일 아리타(有田榮一) 군에게서 편지가 왔는데, 옹주의 학우였던 민용아 씨가 아리타 군에게 1987년 11월 14일자로 보낸 편지를 복사해 동봉하였다. “지난 5월 25일 덕혜님 생신을 맞아 찾아뵈었습니다. 이제 움직이는 것도 불가능한 몸, 이조 최후의 희생, 참혹하여 눈물이 흘러 넘칩니다. 옛날 소학교 시절의 「비행기」라 불리던 노래가 생각나 컷

11) 위의 스기우라 기미코의 회고글에 의하면 덕혜옹주의 2학년 때 담임이다.

12) 앞 인용문, 이왕직에 근무했던 부친을 두었던 다카하시 가에코.

13) 앞 인용문의 스기우라 기미코.

가에 대고 불러 드렸더니, 알아들었다는 표시인지 신음소리를 내서서 방안에 있던 모두가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비행기」란 동요는 덕혜님이 만든 노래입니다.”

아리타 군은 이 편지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경성고등상업학교 동기인 친구에게 이야기했더니 그분의 누나가 우리의 소학교 동기인 마쓰다(松田二三子, 결혼 전의 성三宅)로, 아리타 군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 왔다고 한다. “덕혜님의 비행기란 노래는 지금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자식과 손자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불러 주는 다른 노래와 함께 자주 흥얼거리곤 했습니다. 히노데에서 4학년 때 학교 강당인지 공회당인지에서 음악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합창으로 불렀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리타 군은 또, “정말로 좋은 노래입니다. 민용아 씨가 이 노래를 일본어로 불러 드렸더니 정말이지 감동적이지 않습니까?”라고 쓰고 있다. 전적으로 동감이다. 옹주는 또 와카도 잘 하셨던 것 같다. 우리 동기 중 도쿠미(徳見博) 군의 누나가 회지 2호를 위해 빌려 주셨던 히노데소학교 창립 40주년 기념회지의 ‘사화집’(詞華集)이란 난에 옹주가 쓰신 와카(和歌)가 실려 있다.

선생님에게 가르침을 받으며 파고들어 간  
글의 숲이 얼마나 흥미로운가  
師の君にみちびかれつつ分け入りし  
文の林のおもしろきかな

친구들과 해가 뜨는 정원에서 놀고 있던  
어린 시절이 그립구나  
(友どちと日の出の庭にたはむれし  
幼きころのなつかしきかな)

또한 앞에 언급한 스즈키 하루 선생님의 글에는 “옹주께서 결혼하신 소 백작은 다 이쇼 천황비인 데이메이(貞明) 황후폐하의 사촌동생에 해당합니다.<sup>14)</sup> 이 결혼은 황후폐하의 깊은 배려에 의한 것이었습니다”라고 쓰여 있다. 옹주의 쾌유를 마음으로부터 기원한다.

#### 급우 아리타 에이이치(有田榮一)의 글

우리 히노데 동기생들이 1969년 이래 2년에 한 번씩 내고 있는 『지상(誌上) 합동 클래스회지』라는 것이 있는데, 그 1호에 오니시(大西あき子) 씨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5학년 3학기에는 덕혜남도 학습원으로 가시게 되어 송별회를 창경궁의 비원에서 했습니다. 선생님들과 여학생은 특별히 비원의 정원 구경을 하고 평소 배웠던 노래와 춤 등을 보여 드려 상궁 분들과 다른 분들을 기쁘게 한 것 등 여러 가지가 기억납니다. 또한 덕혜님은 동요 짓기를 아주 잘하셔서 지금도 가끔 입에 올리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행기」라는 제목입니다(이하 노래 가사는 동일)……”. 아마도 덕혜님과 동급생이었던 여학생들은 모두 지금도 이 동요를 입에 올리며 덕혜님을 그리워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일본의 국책에 의해 희생되었다고도 할 수 있는 덕혜님의 병이 혹시 고쳐지지는 않을까 하는 것은 우리의 허망한 바람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 『빨간 벽돌의 우리 배움터: 경성 히노데소학교 백년지』 편집부의 주석

편집부 주(註): 지난번 게재했던, 아리타 씨가 쓴 덕혜옹주가 쓴 동요의 가사와 제목에 대해 동기생 분들의 기억이 세부적인 것과 관련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

14) 훈마 야스코의 덕혜옹주 평전에 의하면 소 다케유키는 데이메이 황후와 혈연 및 계보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다케유키 자신도 소 가문에 양자로 입적했는데, 소 다케유키의 양어머니가 데이메이 황후의 아버지인 구조 미치타카(九條道孝)의 양녀이다. 또 양자로 입적되기 전의 ‘친가’ 쪽으로 따지면 다케유키의 친고모가 데이메이 황후의 어머니가 된다. 즉, 데이메이 황후는 소 다케유키에게 계보상으로는 이모, 혈연상으로는 고종사촌에 해당한다.

서 당시 학예회에서 덕혜옹주와 함께 이 동요를 불렀던 급우로 나중에 모교에서 교편을 잡았던 다케다(武田民子, 현재의 성:小牧) 씨께, 제자이자 편집위원인 고하시(御橋) 씨를 통해 문의해 본 결과 아래와 같은 답신이 와서 소개합니다. “고하시 씨로부터 질문이 있었던 덕혜옹주의 노래와 관련해 알려드립니다. 학예회 날 했던 독창의 기념사진을 앨범에 간직하고 있기에 노래 가사를 찍은 사진을 동봉합니다. 이것은 학예회 때 제일 먼저 1절은 공주님, 2절은 내가 불렀는데, 그 가사 부분을 죽 적어 놓은 것으로 2절의 마지막 부분은 같이 불렀던 기억입니다. …… 나는 덕혜님과 교실에서 같은 책상에 앉았기 때문에 6학년이 될 때 동경학습원으로 전교하시게 되어 섭섭해 하며 헤어졌습니다. 필시 화려한 삶을 사실 거라고 상상했는데, 뒤에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여러 가지로 상심의 나날을 보내시고 병도 얻으신 뒤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슬픈 나날을 보내고 계시다고 들어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조금씩이라도 회복되시길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1989년 3월 15일(다케다 다미코武田民子).

주(注) : 많은 분들이 노래의 제목을 「비행기」로 기억하고 계신 것 같지만, 이 사진 자료에 의하면 원제목은 「빠라」로 되어 있다(편집부).

덕혜옹주와 동시대를 살았던 우리들의 기억에는 귀여운 땅은 머리의 옹주님 모습이 눈에 선하게 떠오르지만 우리들의 애칭이었던 덕혜옹주(德惠妃)에서 소덕혜(宗德惠), 그리고 양덕혜(梁德惠)<sup>15)</sup>로 이름이 바뀌고, 조선과 일본의 틈새에서 줄곧 불행하게 청춘을 보내시고 이제 병상에 누운 박복한 덕혜님의 일을 마음으로부터 아파하는 바이다(편집부).

15) 덕혜옹주의 한국 호적은 1982년에야 회복되었는데, 히노데소학교 시절 쓰던 이름인 이덕혜가 아니라 양덕혜로 등재되었다고 한다.

『빨간 벽들의 우리 배움터: 경성 히노데소학교 백년지』 편집부의 추기(追記)

본지의 원고를 출고하기 직전 동창생 기고란에 덕혜옹주 관련 글을 쓰셨던 마쓰우라 씨로부터 4월 23일자 『요미우리신문』의 기사와 함께 이덕혜 님의 부고를 실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연락을 받았다. (신문기사: 요미우리 서울지국발, 이덕혜 씨가 21일 오전 11시 40분 정신질환과 감기로 한국 서울시 창덕궁 낙선재에서 서거. 향년 76세. 1912년 이[조선]왕조 제26대 고종황제의 3녀로 태어나 1925년 독일, 학습원에서 공부했다. 1931년 소 다케유키 백작과 결혼했으나 1951년 이혼. 1962년 귀국 후 낙선재에서 투병생활을 해왔다. 이조 최후의 황제 순종의 여동생으로 이방자 씨의 시누이에 해당하며, 이조 직계로서는 최후의 황족이었다.<sup>16)</sup>

\* \* \*

히노데소학교를 떠난 뒤 덕혜옹주는 본인도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비극적인 삶을 이어 간다. 1925년 3월 30일 도쿄에 도착한 옹주는 여자학습원 2학년으로 편입하였다. 그러나 1년 뒤, 고종을 대신하여 아버지처럼 옹주를 아껴 주었다는 순종이 사망(1926년 4월)하고, 이어 생모 양귀인마저 사망한다(1929년 5월). 옹주가 만 17세가 된 때였다. 다음 해(1930년) 초부터 옹주는 신경쇠약 징후를 보이기 시작해 등교를 거부하고 심한 불면증을 겪다가 조발성치매 진단을(1930년 9월) 받는다. 덕혜옹주의 증상이 약간 진정되자마자 혼담이 나오기 시작하여 같은 해 11월 소 다케유키와 선을 보고, 다음 해 옹주의 졸업 뒤 결혼식이 거행되었다(1931년 5월). 1932년 8월에는 외동딸 소 마사에(宗正惠)가 태어났다. 옹주의 정신분열 증상은 결혼 후 얼마간은 완화되었지만 출산 후 급속히 악화되었고, 1946년 도쿄 마쓰자와 병원에 입원한다. 결국 1955년 이혼하고 호적상 양덕혜가 되었다. 옹주는 1946년 이래 15

16) 이 글에서는 일본인 동급생들의 기억방식이나 그들의 회고 속에 나타난 덕혜옹주의 학교생활에 대한 선부는 해석은 자제하고자 한다. 다만 덕혜옹주가 지은 동요나 와카에 스며 있는 부정할 수 없는 쓸쓸함과 안타까움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년 가까이 마쓰자와 병원에서 지내다가 1962년 1월, 38년간의 일본생활을 끝내고 귀국했으나 정신분열과 실어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바로 서울대 병원에 입원, 7년간의 병원 요양으로도 회복되지 못하고 1968년 가을, 창덕궁 낙선재로 옮겨 거처하다가 1989년 77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77년에 걸친 생애 중 60여 년을 정신병 속에 산 셈이다. 한편 소 마사에는 메이지대학을 나와 스즈키란 성의 남성과 1955년 결혼했으나 다음 해 8월 행방불명되었다.<sup>17)</sup>

역사적 이유 때문에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실”에 대한 공식적 조명작업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은 탓도 있고, 특히 덕혜옹주의 경우 생의 대부분을 외부와 차단된 채 말 그대로 침묵 속에 살았기 때문에 옹주의 일상이나 생각 등을 직접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는 많지 않다. 본인이 남긴 글이나 편지 등도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최근 한국어로도 번역 출간된 혼마 야스코의 평전은 성실한 자료 검토와 서울과 도쿄, 대마도를 오가는 현지취재를 통해 옹주의 생애를 되짚고 있는 진정성이 느껴지는 전기이다. 특히 한일 어느 나라에서도 별로 알려진 바 없는 소 다케유키에 대한 상세한 소개와 그와 덕혜옹주의 관계에 대한 (그동안 한국사회에 유포되어 있던 피상적 ‘편견’과는) 다른 해석이 인상적이다. 2006년에는 서울대학교박물관에서 “마지막 황실, 잊혀진 대한제국”이란 제목의 사진전을 개최하며 잊혀져 온 “마지막 황실”을 다시 기억의 장으로 끌어내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 전시의 일부로 히노데소학교 시절의 덕혜옹주의 사진도 전시되었는데, 이 사진들은 『경성히노데공립심상소학교사진첩』에서 발췌한 것이다.<sup>18)</sup>

서울대박물관의 전시회 도록은 덕혜옹주 관련 사진이 실린 부분에 “빼앗긴 소

17) 이상 합습원 유학 이후 덕혜옹주의 삶에 관해서는 혼마 야스코의 평전에 근거했다.

18) 『京城日出公立尋常小学校写真帖』, 京城日出公立尋常小学校, 1925. 이 사진첩은 덕혜옹주의 유학을 기념하여 히노데소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이 증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히노데소학교의 모습과 히노데에서의 옹주의 모습 등을 담은 사진 21점이 실려 있다. 뒤면에 유학을 떠나던 당일 경성역에서 찍은 사진도 실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나중에 옹주에게 전달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한 권 소장되어 있는데, 사진 상태가 매우 훌륭하다. 서울대의 전시 도록(서울대박물관, 2006)에는 이 중 8점의 사진이 실려 있다.

녀의 꿈”이란 제목을 달고 옹주의 비극적인 생애를 간단히 소개하고 있다. 총명하고 기품 있게 생긴 재학시절의 사진과 강제유학길에 오르며 경성역에서 찍은 사진 속의,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표정을 보면 매우 와닿는 제목이다. 어쩌면, 이 글에서 소개한 히노데소학교 동급생들의 기록은 그래도 아직은 ‘꿈이 있던 소녀’의 편린인지도 모른다.



부동한 인기는, 전함에 대한 문화적 재현과 더불어,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는가와 관련된 더 큰 내러티브를 만들어 내려는 일본 사회의 움직임에 주목하게끔 한다.

#### 히노데소학교의 덕혜옹주 : 기억의 파편에 조우하며 | 권숙인

투고일자 : 2009년 12월 2일 | 심사일자 : 2010년 1월 12일

이 글은 필자가 우연히 발견한 덕혜옹주에 대한 기록을 소개한다. 단편적으로 알려진 바대로 덕혜옹주는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녀로 태어났지만 일본의 식민통치에 의해 기구하고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다. 그러나 패망한 황실의 일원인 까닭에 그간의 역사에서 거의 가시화되지 못한 인물이다. 이 글에서 소개하는 내용은 옹주가 일본으로 강제유학을 떠나기 전에 4년간 수학했던 경성 히노데소학교의 일본인 동급생들이 옹주의 학교생활에 대한 기억을 기록한 단편적인 글들이다. 기껏해야 사소한 비공식 자료에 그칠 내용을 소개할 수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옹주의 삶에 대한 기록이나 기억이 아직 많은 부분 누락되어 있는 덕분일 것이다. 나아가 불편한 역사적 기억의 복구란 과제가 조금은 더 강조될 수밖에 없는 이즈음, 무엇을 어떻게 복구하고 기억할 것인가를 질문하는 조그마한 에피소드가 될 수도 있겠다.

#### 니시무라 신지의 역사주의 인류학과 문화인류학적 일본학 : 러일전쟁에서 '대동아전쟁'까지 | 전경수

투고일자 : 2009년 12월 22일 | 심사일자 : 2010년 1월 19일

시대는 사람을 만든다. 어느 특정 시대를 살았던 사람은 그 시대를 만들었던 문화담당자라고 말할 수도 있다. 니시무라 신지가 살았던 시기는 메이지-다이쇼-쇼와를 이어 가는 일본의 근 대화와 제국일본의 위상이 전쟁으로 이어졌던 시기를 관통하고 있다. 그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되는 러일전쟁 참전으로부터 대동아전쟁이 격해지던 시기에 그는 전쟁선동의 테마고그로 변신하는 면모도 보였다. 그가 전쟁인류학이란 분야를 언급한 적도 없지만, 그의 인류학은 사실상 제국일본의 전쟁이라는 구도와 별개로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전쟁기를 살았던 한 인류학자의 행로로서 니시무라 신지의 학문적 역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니시무라에 대한 나의 평가 작업은 사실상 일본인류학사라는 틀에서 시작된 일부분이다. 전체적인 틀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다른 학자들의 작업들과 비교선상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부분들이 남아 있다.

말리노브스키와 레드클리프-브라운을 중심으로 한 영국의 사회인류학이 기능주의의 가치를 드높이고 있을 즈음, 역사적 문헌의 축적이 오래된 일본에서 시도했던 인류학의 토착화는 역사주의로 나타났다고 말하고 싶다. 진화론의 인류학을 학습했던 쓰보이(坪井)가 일본인류학을 언급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고문헌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고문헌의 자료들을 토속학적